

## 제 12 장: 이스라엘의 연단과 변화 (속 13:7-14:21) (Israel: Refined and Transformed)

### I. 스가랴 12-14 장의 개요

- A. **복습:** 스가랴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속 12-14),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들과 참혹한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세계적 리더십에 대해 말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연단되며, 변화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12:2-9; 14:2),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실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2:10; 14:3, 9).
- B. 스가랴 12 장은 이 때에 일어날 일을 군사적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조명한다. 스가랴 14 장은 지리적인 변화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역병에 대해 말하고 있다. (12:1-13:6 의 일들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며, 이를 13:7-14:21 에서 다시 내용을 설명한다).
- C. 이 3 개의 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속 12-14 장에는 “그 날에”라는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문구가 18 회 사용되었다 (12:3, 4, 6, 8 [X2], 9, 11; 13:1, 2, 4; 14:1, 4, 6, 8, 9, 13, 20, 21).
- D. 스가랴 14 장은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세계 수도가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6-21). 이 장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전천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항들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에 불가능하다.

### II. 이스라엘의 고난: 불 가운데 연단된 남은 자들 (13:7-14:2)

- A. 주님은 이스라엘이 깨워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분의 방법의 한 부분을 드러내신다. 다니엘은 박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때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언급했다 (단 7:18-27). 이 구절에서 (13:8-9),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르심 안에 고통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경고하신다.
- B.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 C.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 연단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13:7-9).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포위(12:2; 14:2)와 야곱의 환난(렘 30:7)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sup>7</sup>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KJV 흠정역: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sup>8</sup>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절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sup>9</sup>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속 13:7-9)

- D. 스가랴는 11 장에서 다룬 바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목자의 주제로 돌아간다. 이 내용을 통해 새로운 부분이 시작된다. 성령께서는 스가랴의 관심을 거짓 선지자들로부터(13:3-6) 참 선지자, 즉 그분의 동료의 집(이스라엘)에서 상함을 받은 이로 전환시키신다 (13:7).
- E. **칼아 깨어서:** 여기서 칼은 의인화되어서,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도록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름받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칼을 깨워 십자가상의 아들을 찌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깊이 아심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는 권한을 부여 받으셨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칼에 찔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이해하신다.
1. 칼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말한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십자가에 못이 박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우매한 목자(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침을 당했는데 (11:17), 여기에서 침을 당하는 이는 선한 목자이다.
  3. 메시아께서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였지만 (12:10-14),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도 하다 (13:7). 아마도 스가랴를 가장 당혹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한 목자를 치셨다는 사실이었을 것이고 (사 53:10; 행 2:23; 롬 8:32), 게다가 이스라엘이 그분을 찔렀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12:10).
- F.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내 목자” “그 남자(KJV 흥정역)” 그리고 “내 짝 된 자” 라고 불린다 (13:7). 이 세 가지 묘사들 안에서, 우리는 성육신,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된다 (딤펴전 3:16).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이중성,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묵도하게 된다.
1. **내 목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내 목자”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칼이 치게 될 이 목자는 바로 메시아이다.
  2. **내 짝 된 자:**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친족 관계인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시는 한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또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라고 주장하심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참소를 당하셨다.
- G.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친 즉각적인 결과는 “이스라엘의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며, 이는 스가랴가 미리 예견한 것이었다 (11:6, 9, 10). 예수님은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며,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다 (눅 19:41-44; 21:24).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과 관련해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 (마 26:31, 56; 막 14:27, 50).
- <sup>24</sup>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눅 21:24)

- H.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이 구절은 “내 손을 드리우리라”를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내가 작은 자들 위로 “돌이켜서” 내 손을 드리우리라로 번역함으로, 분노가 아닌 그분의 호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 <sup>7</sup> 양이 흠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한글 KJV: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속 13:7)
- I. 긍정적인 해석을 사용하면, “작은 자들”은 “겸손한 이들” (또는 스스로 작게 만든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련한 양 (11:7, 11)과 비슷한 의미로 경건한 남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마치 악한 다수로부터 억압당하는 “가련한 양” (11:7), 의로운 사람들과 같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비록 긴 어둠의 세월 동안 뿔뿔히 흠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의를 보이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항상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구절을 인용하실 때, 경건한 남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 26:31-32; 막 14:27-28; 요 16:32).
- <sup>31</sup>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흠어지리라 하였느니라. <sup>32</sup>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 26:31-32)
- J. **삼분의 일:**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모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될 것이며, 아마도 600 만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에 1,800 만명의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 3:1-6 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온같이 연단될 것을 말하며 이와 동일한 주제를 언급한다.
- <sup>8</sup>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일은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온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속 13:8-9).
- K. **삼분의 일은 멸절하고:** AD70 년의 대 참사, 즉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100 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60 년 후, 비슷한 비극이 일어났다: 바르 코크바(Bar Cochba)라고 불린 거짓 메시아 아래에서 50 만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의 1/3 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신자가 될 것이다.
- L.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함락될 것이고, 이곳의 백성의 절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속 14:1-2).
- <sup>1</sup>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sup>2</sup>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속 14:1-2)
1. **여호와의 날:** 오래동안 고대해왔던 그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위대한 힘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날이다.
  2.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스라엘의 약탈품은 그 도시를 침략하는 이방인들에 의해 나누어질 것인데, 이는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속 12:4-9 의 사건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전리품들이 취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3.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 일시적으로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지만,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약 60 만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예루살렘 도시가 일시적으로 함락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 III.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은 그분의 수도이다 (14:3-21)

- A.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속 14:3-5). 이곳은 속 12:4-10 에서 예언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곳이다. 애통함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 (12:10) 예루살렘 주변에 진친 이방인의 군대로 퍼져나갈 것이다.

<sup>3</sup>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sup>4</sup>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sup>5</sup>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의 [NKJV: My]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속 14:3-5)

1. **여호와께서 ... 싸운것 같이 하시리라:** 그분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주권적인 전사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다 (출 14:13-14; 수 10:14; 23:3; 사 4:15; 대하 20:15).
2. **너희가 ... 도망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새로이 만들어진 골짜기를 통해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극심한 공황상태로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들이 움직일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분은 감람산에 서 계셨고, 이는 아마도 감람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막 11:1, 23).
3. **그의 산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이 산 골짜기를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분의 권능으로 이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출 14:22). 주께서는 이 산을 가르셔서 이 산의 반은 북쪽으로, 다른 반은 남쪽으로 움직이도록 하셔서 동서로 갈라지는 거대한 골짜기를 만드실 것이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쪽의 아셀에까지 미칠 것이다 (아셀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B. 예수님의 왕권은 어둠, 빛, 생수의 기적들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14:6-8).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새로운 수도이자, 천년왕국에서 “에덴동산과 같은 축복”을 전 세계로 점진적으로 퍼뜨릴 진원지로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부분, 밤에 비추는 신비스런 빛과 소성케 하는 물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 4:5; 30:26).

<sup>6</sup>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하나뿐인]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사해]로, 절반은 서해 [지중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속 14:6-8)

1. **빛이 없겠고:** 그 날은 완전한 흑암이 있는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제국에는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이며 (계 16:10), 해, 달, 그리고 별들의 빛이 어두워질 것이다 (사 13:10; 욥 2:10, 31; 3:15; 마 24:29; 막 13:24; 눅 21:25; 행 2:19-10).

<sup>29</sup>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 24:29)

<sup>10</sup> ...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한글 KJV: 흑암에 싸이며] ... (계 16:10)

2. **한 날:** 그런후 갑자기 어두워져 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실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14:7). 이 하나뿐이고 신비스런 빛은 창조의 질서(해, 달, 지형, 동물, 식물 등)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3. **생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진 강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14:8). 에스겔도 이와 동일한 강을 목격했다 (겔 47:1-12). 이 물은 동쪽으로는 사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갈 것이다 (시 46:4; 65:9).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물길이 마르는 여름철에,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도 흘러갈 것이다.

C. 예수님께서서는 천하의 왕 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통치하실 것이다 (14:9; 계 19:16).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시 72:11; 102:15; 138:4; 148:11; 말 1:11).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한 분이 될 것인데, 이는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위에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게 됨을 말한다.

<sup>9</sup>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속 14:9)

<sup>17</sup>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렘 3:17)

#### IV. 위대한 왕의 도성 (14:10)

A.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수도의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14:10-11). 이곳의 전 지역은 크게 변형될 것이다. 이곳은 평평하게 되는 동시에 고도가 높아질 것이며,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형변화는 지진에 의해 생기게 될 것이다.

<sup>10</sup>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 [유다의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 [유다의 남쪽]까지 이를 것이며 [한글 KJV: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 [북쪽 성벽]에서부터 첫 문 자리 [북동 모퉁이]와 성 모퉁이 문 [북서 모퉁이]까지 또 하나넬 망대 [북쪽 성벽]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 [남쪽 성벽]까지라 <sup>11</sup>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속 14:10-11)

1. **아라바 같이(평원처럼) 되되:** 예루살렘과 주변 땅은 평원같이 평평한 곳이 될 것이며, 전 지역이 물리적으로 높여 들어 올려져서 세계 수도를 세우기가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사야, 미가, 에스겔)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높을 것을 예언했다.

<sup>2</sup> 말일에 여호와의 전[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사 2:2)

2. 바론은 이 언급된 장소들이 예루살렘의 동, 서, 북, 남에 있다고 주장한다. 언급된 문들과 망대들은 확실하게 식별할 수는 없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6 마일 북쪽(약 10km)이었고, 림몬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 마일(56km)에 있다.

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예루살렘은 36 번의 전쟁과 20 번의 포위과 봉쇄를 견뎌내왔다. 역사상 어떤 도시도 예루살렘보다 많은 파괴로 고통받은 도시는 없다. 50 번 이상의 침략과, 20 번의 정복, 17 번이나 돌무더기로 무너졌으며, 18 번 재 건축을 겪었다.

B.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완전히 파멸하실 것이다 (14:12-15). 스가랴는 여기서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4:11).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를 멈추게 하시는 일에 열심이 있으시다. 시간 순서상으로, 이 구절들은 3-8 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주께서는 4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적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재앙 (14:12); 공황 (14:3); 두려움에 날뛰며 서로를 대적하는 이방인들 (14:13),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이스라엘 군인들 (14:14a).

<sup>12</sup>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sup>13</sup>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sup>14</sup>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sup>15</sup>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속 14:12-15)

1.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싸우고, 물건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강간하며,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모든 개개인에게 보복하실 것이다(14:1-2).
2. **재앙(역병):** 적군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 눈, 그리고 혀들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14:12). 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그들의 많은 동물들이 죽게 될 것이다 (14:15).
3. **큰 요란:** 거대한 공포가 그들들 사로잡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은 아군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4. **보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이전의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다 (14:14).

C. 이방인들은 회심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14:16-19). 여기서 우리는 모든 열방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분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

<sup>16</sup>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KJV 흥정역: 남은 모든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sup>17</sup>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sup>1</sup>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sup>19</sup>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속 14:6-19)

1. **남은 모든 자:** 대 환란 때에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구원받지 못한 살아남은 자들(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절했던 이들)은 급진적으로 회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남은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 때에 땅에서 살게 될 이들도 (사 4:3; 10:20; 11:11; 49:6; 65:8; 66:19; 렘 31:2; 겔 20:38-42; 36:36; 암 9:9-10; 율 2:32; 속 12:14; 13:8; 14:16).
2.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대 환란에서 살아남은 모든 이방인들은 매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초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4:16). 스가랴는 앞서서 열방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했다 (2:11; 8:20-23).

3. **땅에 있는 족속들:**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 **올라오지 아니하는:** 주께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올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14:18). 이를 무시하는 족속이나 국가에는 농작물을 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14:17).
5. **초막절:** 하나님께서 모두가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절기는 초막절(장막절)이 될 것이다. 이 절기는 주님의 공급하심(음식과 농작물),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의 구원, 열방을 추수하여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의 장막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6.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 즉:**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타협에 대해 비를 멈추심으로 심판하셨다. 주께서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실 것이다 (신 28:23-24).

D.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14:20-21). 이스라엘의 공공의 삶 (말방울들; 14:20), 종교생활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솔; 14:20),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삶 (유다의 모든 솔; 14:21)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sup>20</sup>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솔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sup>21</sup>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솔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속 14:20-21)

1. **방울과 솔들:** 말방울은 예루살렘 거리의 삶의 모습을 대표한다. 예루살렘과 유다 도처의 솔들은 개인 가정 삶을 대표한다. 이 지역의 모든 솔들은 여호와를 위해 구별될 것이다 (14:21). 성전안의 일반 솔들도(14:20) 늦제단에 희생의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주발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2. **가나안 사람:** 이 때는 더 이상의 가나안 인종의 계보가 없으므로, 이 말은 특정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닌,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나안 사람은 경건치 못한 “상인들”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대표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역하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출 19:6). 역사상 처음으로, 온 세상은 한 나라 전체의 각 개인들이 예수님께 급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진정한 거룩한 도성(Holy city)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고, 주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sup>2</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sup>3</sup>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속 8:2-3)

V. 요약: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

- A. 예수님의 왕권은 극적인 이적들을 동반하며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분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14:6-21).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도착은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모든 빛이 어두워짐으로 공표될 것이다 (14:6). 이 날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완전한 흑암이 임하게 됨으로, 그분의 대적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후,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이 어두운 시간에 갑자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14:7). 이 유일무이하고 신비스러운 빛은 모든 창조 질서에 (해, 달, 지형, 동물, 식물 등)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14:8). 이 물은 동쪽으로는 사해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갈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이 마르는 때인 여름철과 차디찬 겨울에도 흘러갈 것이다.
- B.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천하의 왕 중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오직 한 분이 될 것이다 (14:9). 모든 열방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수도의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14:10-11), 전 지역이 크게 변형될 것이다. 이 지역은 평평해질뿐만 아니라 고도가 높아져서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지진이 이러한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를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로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14:11).
- C. 이러한 모든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께서는 자신의 도성과 백성을 향한 열심으로 보이시며 그들의 대적을 끔찍한 역병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는 큰 공포를 가져올 것이며 (14:12-13),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서로를 칠 것이다 (14:3). 이 역병은 대적들이 서 있을 때 살과 눈, 혀가 썩어들어가는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14:12). 이 재앙으로 인해 그들의 많은 동물들이 죽게 될 것이다 (14:15).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모든 보화와 전리품을 취함으로, 이전의 상황들은 반전될 것이다 (14:14).
- D. 이방인들은 회심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14:16-19). 여기서 우리는 모든 열방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탁월함과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 대 환란 때에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구원받지 못한 살아남은 자들은 급진적으로 회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매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초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4:16). 이를 통해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올라올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14:18). 이를 무시하는 족속이나 국가에게는 농작물을 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14:17). 이집트의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저항할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 E.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14:20-21). 이스라엘의 공공의 삶 (말방울들; 14:20), 종교생활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술; 14:20),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삶 (유다의 모든 술; 14:21)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출 19:6).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역하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 세상은 한 나라 전체의 각 개인들이 예수님께 급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전 세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진정한 거룩한 도성(Holy city)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뚜렷히 드러나 있으며, 주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